

5성급 호텔 없고 객실 태부족...국제회의 업무 못낸다

■광주지역 특급호텔 현황

#1. 지난해 말 정부 관계자가 광주를 찾았다.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광주 개최를 염두에 두고 정상들이 머무를 호텔 등 인프라를 점검하기 위한 방문이었다. 광주시 이명순 관광과장은 당시에 떠올리며 "정부 관계자들이 실사한 결과, 광주에는 국의 정상 다수가 머무를 만한 호텔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광주가 유치해 실패한 정상회의는 올 가을 부산에서 열린다. 광주에는 특급호텔 신설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 2019광주세계수영대회가 열린 지난 7월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 이 곳은 대회 메인 호텔로 국제수영연맹(FINA) 고위 관계자나 귀빈(VIP)들 숙소로 사용됐다. 당시 대회 숙박을 총괄하는 현 광주시 오동교 에너지정책과장은 수영대회를 계기로 광주가 호텔 등 관광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 VIP숙소가 부족해 엑셀런트룸으로 불리는 최고급 객실을 6개 객실로 나눠 배정했던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오 과장은 "호텔 120개 객실 중 90개를 수영대회 조직위가 빌렸는데도 객실이 부족해 호텔에서 가장 넓고 좋은 객실을 개조해서 6개 객실을 추가로 확보했다. 불만제기는 없었으나 광주 관광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고 느끼는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광주에 특급호텔(4-5성급) 신설이 시급하다. 광주 시내에 호텔이 부족해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유치가 물거품 되고, 호텔 객실 '쪼개기' 끝에 국제스포츠대회를 무사히 치렀다는 광주시 간부 공무원들의 경험담은 광주 특급호텔 신설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강력한 증거가 된다. 광주 호텔 현황을 보더라도 특급호텔이 조속히 들어서야 한다는 광주시와 지역 경제계·관광업계 주장이 설득력

4성급 2곳·3성급 3곳뿐

방 쪼개기로 수영장대회 치러

"MICE 산업 필수 인프라"

4·5성급 호텔 신설 시급

있어 보인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는 현재 5성급 고급호텔이 전무하다. 호텔 등급별로 살펴보면 4성급 2곳, 3성급 3곳, 2성급 3곳, 1성급 4곳 등 11곳이 전부다. 국내외 다수 정상에 참여하는 행사 개최는 언감생심이다. 5성급 특급호텔이 하나도 없을뿐더러 4성급 호텔의 경우 고급 객실 수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광주 4성급 호텔은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과 힐리데이인 광주호텔 등 2곳으로, 모두 상무지구(구)에 위치한다. 각각 120개, 205개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3성급 호텔은 광주 금남로에 위치한 'ACC 디자인 호텔' 등 3곳이 전부다.

관광업계에서는 "국제대회 등 굵직한 행사를 막힐 없이 치르고, 여행사 등을 통해 단체로 광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숙소가 없어 돌려보내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4성급 호텔과 5성급 호텔 신설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그치지 않는다.

광주시 공모를 거쳐 (주)서진건설 측이 오는 2025년까지 광산구 여등산 일원에 5성급 호텔(객실 160개)을 포함한 관광단지 조성한다는 계획이지만, 앞으로 5년을 기다려야 하는 형편이다.

관광업계와 광주시에서는 여등산 관광단지 호텔이 들어서더라도 'MICE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충분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4-5성급 호텔을 추가로 유치하고, 앞서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시내 면세점 사업자 유치 등 호텔·면세점·유통·관광시설 전반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태풍 지나간뒤 청명한 광주의 가을하늘 태풍이 지나간 뒤 화창한 날씨를 보인 23일 오전 광주시 남구 사직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심 하늘이 청명하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MICE산업은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머릿글자를 딴 것으로 관광산업의 핵심 인이자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21세기 국가 간, 지역 간 관광·회의 산업 유치전이 가열되고 국가 간 문화예술투자를 토대로 무한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화두로 떠오른 지 오래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문 대통령 뉴욕 도착...3박 5일 한반도 평화외교 시작

오늘 오전 트럼프와 정상회담

비핵화·한미동맹 강화 논의

유엔총회 참석 기조연설



뉴욕 JFK 공항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여사.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뉴욕에 도착,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 도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도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등 '평화 외교'에 힘을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한미 정상회담은 한국시간으로 24일 오전(현지시간 23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하노이 노딜' 후 교착상태였던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협상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방위비담금 협상 역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방미 기간에 폴란드·덴마크·호주 정상과도 회담을 한다. 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인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같은 날 덴마크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도 만난다. 24일에는 스톡홀름 호주 총리와 회담한다. 호주는 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터키와 함께 구성된 중견국 협의체인 미타(MIKTA) 회원국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24일 '빈곤퇴치·양질의 교육·기후행동·포용성'을 위한 다자주의에 참석해 12번째로 기조연설을 한다.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성과를 설명하고 우리의 노력을 재차 밝힘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문 대통령은 이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요청으로 마하트라 간디 탄생 150주년 기념 고위급행사 참석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서 한국시간으로 26일 서울에 돌아올 예정이다. /연합뉴스

광주시·현대차 합작법인 글로벌모터스 설립 등기 마무리

올 하반기 완성차 공장 착공

광주시·현대자동차 합작법인 (주)광주글로벌모터스가 23일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하고 노사상생형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건립 및 차량 양산을 목표로 나아간다.

광주시는 지난 19일 광주 노사민정협의회의 회와 주주감담회를 거쳐 20일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하고 23일 등기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출범식 및 발기인 총회 이후 한 달여 만에 합작법인 설립이 마무리 된 것이다.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주)광주

글로벌모터스(이하 회사)는 사무실 개소, 조직 및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광주시는 전했다. 올 하반기 완성차공장 착공, 2021년 하반기 양산이라는 당초 계획도 변화가 없다고 광주시는 덧붙였다.

회사 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광산구 삼거동 빛그린산단 내 공장 부지(18만3000평, 1391억원)를 매입하고, 공장 설계와 함께 공장 인허가 취득 절차에 나선다. 올 11-12월 착공식, 2020년 9월 공장 설비(생산라인) 설치, 2021년 2월 시운전, 2021년 4월 시험생산, 2021년

9월 양산 체제 돌입 일정을 갖고 있다.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사업은 빛그린산단에 연 10만대 규모의 생산라인을 구축해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현대차로부터 위탁받아 생산하고 정규직 1000여 명을 고용하는 계획이다.

(주)광주글로벌모터스는 광주시, 현대차, 광주은행, 산업은행, 지역건설사 및 자동차부품 업체 등 36개 기관·기업 등이 2300억원을 출자해 만든 주식회사로, 회사에 공상부지 매입과 건립, 생산라인 구축 등 사업을 위해 필요시 최대 3454억원을 차입 조달한다. /김형호 기자 khh@

HNT 하나투어

추천여행지 알수록 더 머물고 싶은 필리핀 여행

무안공항에서 떠나는 '가을여행'을 소개합니다

중국·마카오

백두산

연갈백두산 4일, 5일

449,000원~

수 3박4일, 토 4박5일
현지저녁>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민족의 영산 #백두산 전지감상

동남아·대만

대만

대만 5일, 6일

540,000원~

수 4-6회 운항·일자리형
현지저녁>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호핑투어 #관심사지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062)228-1199

※ 항공사 사정에 따라 운항 정보 변경 가능합니다

■여행상품 가격표(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도착비지] 도착비지를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도착비지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입니다.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메니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 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여행목적지 여행경보단계 여행목적지의 여행경보단계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습니다.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1993-000006호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주)하나투어 ■최소 출발전인 10명 기준/호텔 2급호텔 이상 2인1실/교편편 항공/비행(상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칭찬/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여행 보험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